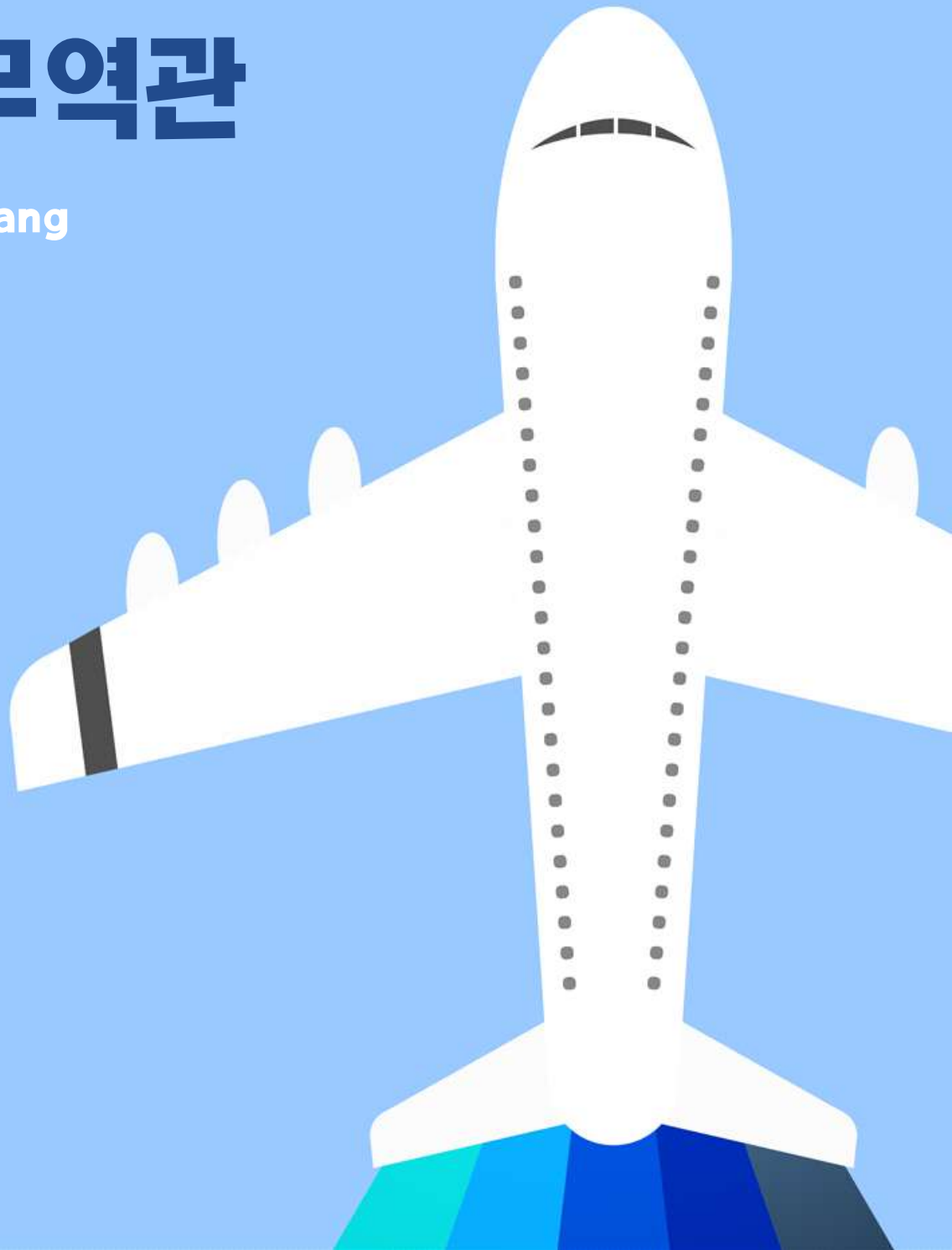


2023 해외출장 가이드

베트남 다낭무역관

KOTRA Danang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 차

I. 베트남 및 다낭 개황	01
II. 베트남 경제 동향 및 전망	03
III. 베트남 대외교역 및 투자 동향	06
IV. 한-베 교역동향 및 특징	10
V. 베트남 시장 주요 이슈	13
VI. 체류시 참고사항	22
VII. 주요 연락처	24


I. 베트남 및 다낭 개황

1. 베트남 개황

- 면 적 : 332,212km²(한반도의 약 1.5배, '22년 베트남 통계청)
- 인 구 : 1억 30만명('23년, 베트남 통계청)
- GDP : 약 4,300억 달러('23년, 베트남 통계청)
- 1인당 GDP : 약 4,284 달러('23년, 베트남 통계청)
- 경제성장률 : 5.05%('23년, 베트남 통계청)
- 물가상승률 : 3.25%('23년, 베트남 통계청)
- 환 율 : 1달러 당 23,957 VND('24년 3월 13일, 베트남 중앙은행 기준)
- 시 차 : 한국보다 2시간 늦음 (G.M.T + 7시간)
- 민 족 : 비엣족(총인구의 약 85.7%), 타이족, 크메르족 등 54개 민족
- 종 교 : 불교(45.8%), 카톨릭(27.1%), 개신교(6.3%), 기타(20.8%) 등
- 정치체제 : 사회주의 공화국(공산당 1당 체제)
- 주요 지도자
 - 당서기장 : Nguyen Phu Trong
 - 국가주석 : Vo Thi Anh Xuan(권한대행)
 - 총 리 : Pham Minh Chinh
 - 국회의장 : Vuong Dinh Hue



2. 다낭 개황

면적·인구	1,285 km ² / 119.5만명			
지역내 총생산(GRDP)	US\$ 5,277백만			
1인당 총생산	US\$ 4,324			
GRDP 성장률	+14.05%			
FDI 누적	US\$ 60.35억 / 900개 프로젝트			
투자환경순위	지역경쟁력지수(PCI) : 4위 / 63개 성시			
주요 개발지역 및 중점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지역 : 호아칸(Hoa Khanh), 리엔찌우(Lien Chieu) 등 6개 산업단지와 하이테크파크, IT파크, 소프트웨어파크, FPT Complex 운영 • 중점분야 : 도시인프라개발(스마트 시티 등), ICT 등 하이테크 공업, 관광 및 부동산 개발, 교육서비스, 금융업 등 			
주요 산업 ('22년)	항목	비중	주요 업종	성장률
	1차 산업	1.95%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등	+3.39%
	2차 산업	20.43%	공업, 건설업, 제조업 등	+6.39%
	3차 산업	68.38%	도·소매업, 숙박·요식·부동산업 등	+17.85%
세입	9.24%	-	-	
주요 기업	(베트남기업) SUN 그룹(부동산 및 엔터테인먼트), DRC(고무), HOA THO TEXTILE(섬유봉제), HACHIBA TEXTILE(섬유봉제) 등 주요 기업 소재			
	(외국기업)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의 투자 진출 증가세 - (일본) Yamato Sewing Company, US\$ 28백만 투자 - (호주) RMIT University, US\$ 132만 투자			
한국기업 투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액 기준 일본, 미국, 싱가포르에 이은 4위 투자국 • 228개 프로젝트, 총 US\$ 371백만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투자개발유한회사/ US\$ 90백만/ 부동산 개발 - 롯데마트/ US\$ 43백만/ 유통업 - VK 플러스 로지스틱/ US\$ 25백만/ 운송 및 물류업 - 대원/ US\$ 21백만/ 부동산 개발 - 덴티움/ US\$ 80백만/ 치과 의료기기 제조업 			
전략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중부 최대 도시이자 동남아시아 「Trade Gatew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베트남 5대 무역항 및 최고수준의 교통·통신 인프라 보유 - (위치)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동남아 동서회랑(EWEC)의 동부 거점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태평양 진출 기지 • 총 50개의 대학 및 직업학교 보유, 전체 인구의 52%가 노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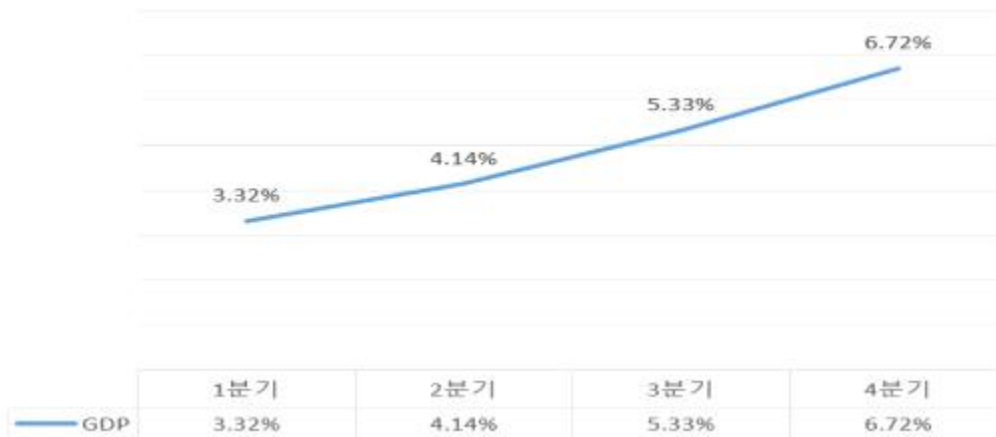
II. 베트남 경제 동향 및 전망

1. 경제 동향

□ 2023년 베트남 경제 요약

- 2023년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 5.05% 기록,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대외수요 감소로 인해 베트남 경제 상황 악화
 -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은 완제품 수요 감소를 불러왔으며, 이는 수출 감소로 이어져 베트남 무역 부문 타격
 - 또한 수출 감소는 재고량 증가, 공장 가동률 하락 등 베트남 생산에 직접적인 타격 야기, 베트남의 주요 경제 성장 동력인 무역, 생산부문 크게 하락
 - 하지만 2023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침체 완화되어 대외수요가 회복세를 보이자 베트남의 무역, 생산 부문이 안정화되며 1분기 3.32%까지 하락했던 경제 성장률이 4분기에는 6.72%까지 상승

2023년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증감률 추이
(단위: %)



자료 : 베트남 통계청

2023 주요 경제지표(전년대비 증가율)

GDP	소비자물가 (CPI)	산업생산지수 (IIP)	무역	외국인직접투자 (FDI)
5.05%	3.25%	1.5%	수출: 3,555억 달러(-4.4%) 수입: 3,275억 달러(-8.9%)	366억 달러(61.1%)

2. 경제전망

□ 2024년 베트남 경제 전망

- 2024년 베트남의 목표성장률 6~6.5%
 - 2023년 하반기부터 베트남의 주요 성장 동력인 제조 부문이 회복세를 보이며 2024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세계 경제·금융기구*들은 2024년 베트남 GDP 성장률이 약 5.8~6.7%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함
 - * 경제·금융 기구 : IMF, Standard Chartered, ADB, UOB, 블룸버그
 - 또한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 또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2024년 베트남의 경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됨

□ 2024년 베트남 경제 주요이슈

- 대외 수요 개선
 - 베트남은 대외 무역, 생산 부문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는 국가로 2023년 베트남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은 대외 수요 약화로 인한 무역, 생산 부문의 침체로 분석되고 있음
 - 이에 2024년 베트남 경제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외 수요 개선이 큰 영향을 보일 것으로 분석됨
 - 최근 대외 수요가 개선되면서 베트남의 경제가 안정화되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 침체 회복 속도가 늦어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
- 글로벌 최저한세
 -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 필라(Pillar)2에 따라 베트남은 2024년 글로벌 최저한세 기준 도입이 예정돼 있었고 지난 2023년 11월 29일부 국회 승인을 득하며 2024년 1월 1일부 시행이 공식 확정됨
 -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베트남 내 소재한 다국적기업들도 이전까지 받아왔던 법인세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어 베트남의 투자매력도가 일시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일각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이 베트남 해외투자 유치 금액에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베트남은 이번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 행정절차 간소화 ▲ 인프라 개발 ▲ 인적자원의 개발 등 외국기업 환경 개선 정책을 도입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분석
- FDI 투자 유치
 - 2023년 4분기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등록)액이 전년동기대비 약 20.5% 증가하는 등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임
 -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여전히 베트남의 경제 성장 또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지금 견조한 FDI 투자 유치 상승세는 2024년 베트남의 경제 성장에 중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대나무 외교’라 불리는 실리외교
 - 휘어질 수 있지만 부러지지 않는다는 뜻의 ‘대나무 외교’는 베트남의 외교 접근법을 반영하고 있음. 이 같은 외교 기조는 미-중 경쟁 상황에서 베트남에 큰 기회를 가져다주고 있음
 - 최근 글로벌 공급망 개편에 따라 베트남이 글로벌 생산기업들의 생산기지로 부각되며 베트남에 미국, 중국의 국민이 방문하는 등 양 진영에 속하지는 않으면서도 실리를 챙기는 외교로 투자 유치 지속 확대 추진

Ⅲ. 베트남 대외무역 및 투자 동향

1. 베트남 대외교역

□ 교역동향

- 지난 5개년 개발계획 기간(2016-2020) 동안 베트남의 대외 교역액은 연평균 11.6%(수출액 12.5%, 수입액 10.7%)의 속도로 증가

<2023년 베트남의 주요 교역국 현황>

(단위 : US\$ 십억, %)

순위	수출국가	수출액(비중)	순위	수입국가	수입액(비중)
1	미국	97.0(27.4)	1	중국	110.6(33.9)
2	중국	61.2(17.3)	2	한국	52.5(16.1)
3	한국	23.4(6.6)	3	대만	18.4(5.6)
4	일본	23.3(6.6)	4	일본	21.6(6.6)
5	홍콩	9.6(2.7)	5	미국	13.8(4.2)
6	네덜란드	10.2(2.9)	6	태국	11.7(3.6)
7	독일	7.4(2.1)	7	호주	8.5(2.6)
8	인도	8.4(2.4)	8	말레이시아	7.8(2.4)
9	태국	7.1(2.0)	9	인도네시아	8.7(2.7)
10	영국	6.3(1.8)	10	인도	5.8(1.8)
기 타		100.3(28.3)	기 타		66.6(20.4)
합 계		354.6(100.0)	합 계		326.3(100.0)

자료 : 베트남 관세청

- 2023년 대외 수요 부진으로 베트남 교역액 전년대비 약 6.6% 감소한 6,830억 불 기록, 무역수지는 8년 연속 흑자 달성
 - 수출액 3,555억 달러, 수입액 3,27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 4.4%, 8.9% 감소, 무역 수지는 28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무역수지 흑자는 불황기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한 데 따른 '불황형 흑자'
 - 베트남의 수출 및 수입에서 FDI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 73.1%(2,599억 달러), 64.1%(2,102억 달러)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
 - 교역 1위 중국(1,718억 달러), 2위 미국(1,108억 달러), 3위 한국(759억 달러)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 억,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	2,140 (21.2)	2,434 (13.2)	2,642 (8.4)	2,826 (6.9)	3,363 (19.0)	3,713 (10.5)	3,555 (-4.4)
수입	2,111 (20.8)	2,366 (11.1)	2,533 (7.0)	2,626 (3.7)	3,322 (26.5)	3,589 (7.8)	3,275 (-8.9)
무역수지	29.1	67.9	111.1	199.5	40.8	124.0	280.0
교역규모	4,251 (21.0)	4,801 (12.9)	5,176 (7.8)	5,453 (5.3)	6,685 (22.6)	7,302 (9.1)	6,830 (-6.6)

자료 : 베트남 관세청, 베트남 통계청

□ 품목별 수출입 동향

- (수출) 3,555억 달러로 전년 대비 4.4% (158억 달러) 감소
 - 베트남 3대 수출품목(휴대폰, 컴퓨터, 기계장비 및 부품 등) 중 컴퓨터·전자기기 및 부품 품목 이외에는 감소율 기록
- (수입) 3,275억 달러로 전년 대비 8.9% (314억 달러) 감소
 - 무역 구조상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품 등 중간재 수입규모가 수입의 대부분으로 전체 수입액의 93% 이상 차지
 - 대외 수요 악화로 재고 증가 및 공장 가동률이 감소되어 컴퓨터·전자기기 및 부품을 제외한 베트남 주요 수입 품목들의 수입액이 모두 감소함.

<2023년 베트남의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 US\$ 백만, %)

순위	수출 품목	수출액(비중)	순위	수입 품목명	수입액(비중)
1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2,379(-9.7)	1	전자제품 및 부분품	87,965(+7.4)
2	전자제품 및 부품	57,336(+3.2)	2	기계 장비 및 기타 부속품	41,579(-7.9)
3	기계장비 및 부품	43,128(-5.7)	3	전화기 및 부분품	8,749(-58.6)
4	섬유/직물제품	33,329(-11.4)	4	직물	13,016(-11.5)
5	신발류	20,237(-15.3)	5	플라스틱 원료	9,755(-21.2)
6	목재 및 목제품	13,467(-15.9)	6	철강재	10,425(-12.5)
7	철강으로 만든 제품	3,973(-14.5)	7	기타 기초 금속류	7,626(-17.6)
8	운송수단 및 부품	14,157(+18.1)	8	화학물질	7,508(-7.5)
9	수산물	8,971(-17.8)	9	원유	7,605(-13.0)
10	섬유원사(Yarn)	4,355(-7.6)	10	화학제품	7,726(-15.5)
	기 타	103,339		기 타	124,419
	합 계	354,671		합 계	326,373

자료 : 베트남 관세청

2. 외국인 투자동향

□ 개 황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에 따르면, '23년 FDI 유치 총액은 366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1% 증가
- '23년 상반기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금액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4.3% 감소했으나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23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 이에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임
 - 또한 '23년 하반기 ▲미국, 중국 등과의 정상회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24년에도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유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최근 5년간 외국인 총 투자액 현황>

(단위 : US\$ 백만, 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누적 총투자액 ('88~'23)
투자 금액	38,951.7	28,530.1	31,153.3	27,718.1	36,607.6	468,917.5
증감률 (전년 대비)	9.8%	-24.9%	9.2%	-11.0%	32.1%	-
투자 건수	16,227	9,804	6,520	6,709	7,901	39,140
증감률 (전년 대비)	51.4%	-35.0%	-33.5%	2.8%	17.7%	-

* 자료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3.12.20 기준,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등록 기준

** 연간 총투자는 (신규투자+증액투자+주식/지분 투자 포함)

- 2007년 베트남의 WTO 가입에 따라 유통업, 무역업, 요식업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제한을 두었던 분야가 추가로 개방됨. 이에 따라 제조업에 집중되었던 외국인투자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 (일부 조건부 투자분야 유지)
- 2023년 외국인직접투자 국별 순위는 싱가포르 68억 달러, 일본 65.6억 달러, 홍콩 46.8억 달러, 중국 44.7억 달러, 한국 44억 달러 順
 - 국가별 신규 투자 규모는 싱가포르(37.7억 달러), 중국(35.4억 달러), 홍콩 (34.1억 달러), 대만(22.5억 달러), 한국(18.4억 달러) 順
 - 기존 제조업 투자 강국이던 한국·일본 감소, 중국·홍콩 신규 투자 확대

<주요 국가 최근 3년 對베트남 투자현황>

(단위 : US\$ 백만)

국가명	2021년		2022년		2023년		누적 총 투자액 ('88~'23.8)
	투자액	전년대비 증감률	투자액	전년대비 증감률	투자액	전년대비 증감률	
한국	4,953.2	25.4%	4,879.0	-1.5%	4,400.9	-9.8%	85,865.80
싱가포르	10,712.0	19.1%	6,455.0	-39.7%	6,803.5	5.4%	74,519.37
일본	3,897.5	64.6%	4,781.4	22.7%	6,566.0	37.3%	73,962.94
대만	1,252.0	-39.2%	1,351.6	8.0%	2,883.8	113.4%	39,315.86
홍콩	2,315.8	15.8%	2,223.9	-4.0%	4,684.0	110.6%	34,124.02
중국	2,921.7	18.8%	2,518.0	-13.8%	4,470.8	77.6%	27,479.06
버진 아일랜드	569.6	-36.9%	607.0	6.6%	225.5	-62.9%	22,724.02
네덜란드	1,122.3	25.2%	702.2	-37.4%	805.7	14.7%	14,205.69
태국	349.7	-80.4%	198.9	-43.1%	879.5	342.2%	14,054.61
말레이시아	142.8	-26.8%	185.2	29.6%	442.1	138.7%	13,106.89
미국	738.7	104.8%	748.2	1.3%	626.3	-16.3%	11,826.73

* 자료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3.12.20. 기준, 무역관 자체 집계, 순서는 누적 투자액 순

<對베트남 산업별 FDI 투자 동향>

(단위 : US\$ 백만, 건)

연번	구분 산업	2023. 12. 20 기준 누계		2023. 01. 01 ~ 12.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6,875	283,026.23	1,075	15,850.07	23,504.98
2	부동산경영	1,135	68,045.86	68	982.24	4,665.76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94	40,671.39	12	2,090.94	2,373.42
4	호텔, 외식서비스	986	14,338.97	62	30.76	84.03
5	건설	1,820	10,909.30	40	74.50	289.36
6	도소매; 유지보수	7,010	10,988.45	942	439.19	1,261.95
7	물류운수	1,094	6,127.79	117	220.67	463.78
8	과학기술, 전문활동	4,497	5,450.13	403	179.64	1,285.00
9	정보통신	2,938	5,121.87	291	51.29	416.55
10	채광	108	4,892.57	-	-	1.03
11	교육, 양성	687	4,615.72	69	13.18	47.51
12	농, 임, 수산	536	3,869.87	19	48.34	61.98
13	예술 오락	144	3,165.99	5	7.39	13.62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86	3,158.22	3	115.75	116.18
15	의료, 사회복지	157	1,763.69	4	7.05	362.39
16	행정, 지원 서비스	618	1,065.19	59	23.16	58.61
17	금융, 은행, 보험	96	927.73	11	7.58	1,555.89
18	기타서비스	152	767.51	8	43.87	45.58
19	가구내 고용활동	7	11.07	-	-	-
	합계	39,140	468,917.55	3,188	20,185.62	36,607.62

자료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3.12.20.일 기준

VI. 한-베 교역 동향 및 특징

□ 한-베 교역 동향

- 베트남은 우리나라 동남아 경제협력의 핵심 파트너
 - '23년 한국의 對ASEAN 교역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9%이며 그 외 투자, 인적교류, 관광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 제 1의 협력국가로 자리 잡음
 - 한국은 베트남의 3대 교역 파트너이자 투자국이며,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 상대국(누적기준)이자 아세안 지역 내 최대 개발협력 파트너임
 - 양국 간 협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제조업뿐 아니라 유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 3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한 베트남
 - 베트남은 '22년, '23년 연속 한국의 3대 수출시장(중국, 미국, 베트남 순)이며 기존 한국의 4대 교역국(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순)에서 2022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3대 교역국으로 부상할 만큼 현 시점 베트남은 한국의 매우 중요한 교역 파트너임

<우리나라 10대 수출 대상국 변화 추이>

(단위 : US\$ 백만)

2020		2021		2022		2023	
중국	132,565	중국	162,913	중국	155,546	중국	124,817
미국	74,116	미국	95,902	미국	109,743	미국	115,696
베트남	48,511	베트남	56,729	베트남	60,711	베트남	53,479
홍콩	30,654	홍콩	37,467	일본	30,601	일본	29,000
일본	25,098	일본	30,062	홍콩	27,629	홍콩	25,193
대만	16,465	대만	24,285	대만	26,194	대만	20,178
인도	11,937	인도	15,603	싱가포르	20,212	싱가포르	18,751
싱가포르	9,828	싱가포르	14,149	인도	18,837	인도	17,949
독일	9,576	멕시코	11,290	호주	18,761	호주	17,791
말레이시아	9,078	독일	11,110	멕시코	12,639	멕시코	12,221

자료 : 관세청

- 양국 교역은 1992년 수교를 맺은 이후 2023년 794.3억 달러 교역액 달성
- 우리나라는 대베트남 무역을 통해 매년 큰 액수의 무역 흑자 기록 중
- 한국-베트남 FTA는 '15년 12월 발효되어 '24년 9년차를 맞이하였고, '22년 1월 RCEP이 발효됨에 따라 한국과 베트남이 체결한 FTA는 한-베, 한-아세안, RCEP 총 3개임
- 베트남의 세계 시장 편입 추세(EVFTA, CPTPP 등)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진입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베트남의 해외 수출 시장 접근 및 품목 다양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 주요 수출 품목

-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 진출이 확대되며 이들의 현지 생산 활동을 위한 기계·설비류 및 원부자재 수출도 증가
-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중간재·자본재의 비중이 소비재보다 월등히 높음
 - 특히 한국의 대베트남 최대 투자 산업인 전기·전자 관련 품목 비중이 높음
 - 주요 품목은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기구부품, 석유제품 등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 백만, %(전년대비 증감률))

품 목 명	2020	2021	2022	2023
반도체	11,501(7.2)	14,024(21.9)	16,240(15.8)	12,729(-21.6)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9,552(19.9)	12,050(26.1)	12,527(4.0)	12,350(-1.4)
무선통신기기	3,467(18.2)	3,315(-4.2)	2,358(-29.2)	3,319(-11.0)
기구부품	2,250(0.9)	2,405(7.3)	2,194(-8.8)	2,166(-8.1)
석유제품	1,195(-45.6)	1,158(-3.2)	3,733(222.3)	1,997(-22.6)
합성수지	1,615(-0.6)	2,415(49.5)	2,581(6.9)	1,861(-15.1)
플라스틱 제품	1,115(-7.9)	1,174(5.3)	1,067(-9.2)	1,021(-4.2)
철강판	1,052(-9.1)	1,267(20.4)	1,069(-15.6)	887(-17.0)
합 계	48,543(0.8)	56,726(21.9)	60,972(7.5)	53,479(-12.3)

자료 : 한국무역협회(MTI 3단위 기준)

- 한국-베트남 무역 거래 시 한-베트남 FTA 또는 한-아세안 FTA, RCEP 중 특혜 관세 혜택이 유리하고, 베트남에서 가공 후 수출할 대상국을 고려하여 FTA를 선택해야 함

□ 주요 수입 품목

- '23년 기준 한국의 대베트남 주요 수입 품목은 무선통신기기, 의류, 컴퓨터, 신변잡화,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등임
 - 특히 의류, IT기기, 신변잡화 등의 공산품은 베트남에 소재한 한국 투자 기업 들로부터 역수입이 주류를 이룸
- 아울러 베트남의 다양한 농·수산물이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한-베 FTA에 따른 관세 혜택으로 교역 품목이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 백만, %(전년대비 증감률))

품 목 명	2020	2021	2022	2023
무선통신기기	4,980(-12.5)	5,579(12)	5,986(7.3)	4,543(-24.1)
의류	3,146(-13.7)	3,393(7.9)	3,840(13.2)	3,544(-7.7)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027(87.1)	876(-14.7)	783(-10.5)	657(-15.9)
신변잡화	1,029(-2.2)	983(-4.5)	1,250(27.2)	1,252(0.2)
목재류	632(-3.9)	755(19.5)	942(24.8)	722(-23.3)
컴퓨터	1,270(87.1)	1,659(30.6)	1,948(19.1)	2,075(6.6)
기구부품	481(-5.9)	624(29.6)	654(4.8)	571(-12.7)
산업용 전기기기	574(20.0)	725(26.2)	970(33.8)	1,396(44.0)
반도체	561(18.9)	750(33.8)	787(5.0)	2,053(160.9)
영상기기	406(14.0)	460(13.2)	463(0.7)	385(-16.8)
합 계	20,579(-2.3)	23,966(16.5)	26,726(11.5)	25,941(-2.9)

자료 : 한국무역협회(MTI 3단위 기준)

V. 베트남 시장 주요 이슈

□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등을 겪으며 GVC 재편의 대표 수혜국으로 부상

- 미-중 통상분쟁에 이어 중국발(發)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속화된 GVC 재편
 - 기존 중국 중심 글로벌 GVC은 미-중 통상분쟁 및 코로나19 사태를 맞닥뜨리며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 효율보다는 안정성이라는 가치가 대두
 - 한때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으나, 특정 국가지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탈(脫)중국 및 China+1,2 전략 가속화
 - 글로벌 기업들의 피해와 위기감은 기존의 생산기지 및 원부자재 공급선 다변화 계획에 가속화 요인으로 작용

○ 리쇼어링 대신 ‘니어쇼어링’, 가깝고 안정적인 베트남으로

- 생산 제품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기존 생산기지나 본국에서 근접한 곳으로 분산·이전 하는 ‘니어쇼어링’이 증가하는 추세
- 베트남은 ▲저임금 노동력*, ▲지리적 인접성, ▲정치·경제적 안정성, ▲산업 인프라의 지속적인 개선 등을 바탕으로 다수 글로벌 기업들의 니어쇼어링 대상지로 우선 검토되고 있음

* ILO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315달러, 중국은 390달러

□ 높은 대외개방성을 바탕으로, 아세안 진출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

○ 베트남, RCEP으로 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

- 베트남은 한-베 FTA 포함해 총 15개 FTA 체결 완료, EU 27개국을 포함한 약 52개 국가와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글로벌 교역관계에서 참여도 확대
- 최근 EVFTA('20년 8월 1일 발효), UKVFTA('21년 1월 1일)에 이어, 세계 최대 규모의 인구 및 GDP를 보유한 다자간 무역협정 RCEP('22년 1월 1일) 등을 체결하며 통상저변 포괄적으로 구축 및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경쟁력 확보

* RCEP 발효 후 수입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의 92%까지 철폐할 예정이며, 반대로 자국 수출품을 아세안 국가로 수출 시 85.9%, 기타 국가 수출 시는 89.6%의 관세가 철폐됨

□ 베트남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FDI 기업군

- FDI 기업이 베트남 수출 성장을 견인
 - '21년도 FDI 기업의 수출액은 2,452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72.9% 차지, 베트남 대외교역에 있어서 FDI 기업의 높은 의존도를 방증
 - * 연도별 전체 수출에서 FDI 기업의 비중 추이: (2016년) 70.2% → (2017년) 71.1% → (2018년) 70.5% → (2019년) 68.0% → (2020년) 72.2% → (2021년) 72.9%

□ 1억 인구의 젊은 소비시장, 코로나19 속에서도 꾸준한 소비심리

- 베트남은 약 9,8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15위 거대국가로, ASEAN 회원국 가운데서는 인도네시아(2억 7천만 명, 세계 4위), 필리핀(약 1억 900만 명, 세계 13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
 - 기대수명 상승과 높은 출산율의 영향으로 베트남 인구는 2023년경 1억 명 돌파, 2050년까지 1억 2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World Bank)
- 소득증가와 중산층 증대로 우수한 소비시장 보유
 - 주요 소비계층인 20~49세까지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2035년에는 중산층 인구비중이 전체 인구의 5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
- 전체 인구의 약 34%를 차지하는 15~34세 젊은 층이 내수시장의 핵심
 - 청소년기 및 결혼·육아기 연령층 소비자의 주요 소비품목인 IT 제품, 생활가전제품, 유아용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이며, 대도시 거주 중산층 가구를 겨냥한 프리미엄 제품 시장도 확대되고 있는 양상
 - * 베트남 중위소득 1가구당 가처분소득은 2016년 837달러에서 2021년 1,352달러로 증가 예상, 중산층 수는 2030년까지 9,5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PwC)
- 도시 유입 인구증가 및 소득수준 증대로 상품 수요의 다양화·고급화와 함께 현대적 유통망이 급속도로 발달, 프랜차이즈 진출도 활성화 추세
 - 최근에는 현지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높은 접근성을 겸비한 미니마트와 편의점이 급속히 성장 중
 - 1억에 가까운 인구 성장 및 현지 소비자들의 경제력 제고 덕분에 베트남은 노동 시장의 강점이 우선 부각됐던 과거와 비교해 소매유통 시장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

- 실제로 일부 지역(특히 호찌민시와 하노이 같은 5대 중앙정부직할시)의 소득수준은 국가 평균 대비 2~3배가량 높음. 다만, 베트남인의 평균 소득수준이 연간 3,000달러 전후이며 베트남의 지역별 소비자의 경제력에 큰 편차가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함

□ 가속화된 디지털전환,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세 눈여겨 보아야

-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 중 하나로 연간 성장률 35%를 기록, 일본 보다 2.5배 높은 성장률을 보임.
 - Lazada, Shopee, Tiki, Sendo는 베트남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Big4로 꼽히며 은행들과 제휴를 맺고 자체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매출 증대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도시 (하노이, 호찌민, 다낭)의 오프라인 쇼핑인구 중 20~30%가 온라인 쇼핑인구로 전환(Nielson)
 - * 온라인 배달 서비스 음식주문 플랫폼(Grab Food, Now, Baemin 등)의 배달 음식 주문량은 코로나 19 유행 이전보다 50% 증가, 지속 성장 전망
 - * 식료품 및 생필품 구매는 주로 Grab, Vinmart, Co.op, Chopp 등의 모바일 플랫폼 선호
- 가처분소득 증가 및 경기 활성화에 따른 소비 지출 확대, 인터넷 및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를 토대로 전자상거래 시장 역시 지속 성장할 전망
 - '20년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8% 성장, 118억 달러에 달함
 - 2021~2025년 기간 연 평균 25% 성장하고, 2025년까지 3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iDEA, 베트남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부)

□ 1국 3색의 베트남

- 베트남 북부·중부·남부는 물리적 거리, 역사적 배경, 상이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해 성장 격차가 상당하며, 소비성향과 투자환경 면에서 차이 뚜렷
- (호찌민시) 베트남 경제도시이자 최대 소비시장
 - 의류·섬유, 경공업, 유통, 부동산, 건설 등 다양한 분야 투자 러시, 닌투언성, 빈투언성 등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와 스마트시티 등의 프로젝트 진행 중
 - 호찌민시는 상대적으로 높은 거주자 소득수준, 쇼핑·외식·여가 지출에 관대한 성향, 새로운 상품에 대한 호의적 태도 등으로 소비재 진출 시장으로 적합
 - 베트남 시장의 테스트 베드로 주목을 받으며 상당수의 기업, 스타트업이 호찌민 시에 전초기지를 구축

- (하노이) 하노이를 중심으로 대기업 및 1,2차 협력사 중심 투자
 - 소비시장 측면에서 하노이는 거주자들의 소비지출에 인색한 태도, 기존 브랜드에 대한 높은 충성도로 인해 신규 소비재 품목 진출지로는 부적합하다는 평가, 다만 과시적 소비성향이 강해 초고가 브랜드 입점이 활발한 편
 - 최근 인프라 개선과 행정개혁에 주력, 동남권 유망 투자지로 재조명
 - 삼성, LG등 국내 전기·전자 대기업의 북부지역 투자 진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협력업체 상당수가 하이퐁시, 박닌성, 타이응우옌성 등에 진출

- (다낭) 베트남 대표 관광도시에서 동남권 하이테크 경제도시로 도약 추진
 - 2013년 하이테크파크 조성 후 외국인직접투자(FDI) 9건을 포함 총 18개 프로젝트에서 미화 5억 6400만 달러 유치
 - * 미국의 유니버설알로이(Universal Alloy,UAC)는 보잉, 에어버스 등의 부품 공급 업체로서 다낭 Sunshine Aerospace 공장에서 4천여 종의 항공부품을 생산하여 북미, 유럽, 아시아로 수출
 - 외국인자본의 고급 리조트 건설과 국제 직항노선 신규 취항이 잇따르면서 베트남은 물론 동남아 지역의 대표적 휴양지로 꼽히고 있음

<베트남 시장 SWOT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 배터리, 건설/인프라 등 베트남에서 수요가 높은 부문 관련 글로벌 주요기업 기진출으로 높은 기술경쟁력 보유 ▶베트남 주요 소비층인 젊은 세대들의 한국 브랜드 인지도 및 충성도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또는 베트남 현지 기업과 가격경쟁시 비교 열위에 위치 ▶베트남 정부의 자국 산업 우선주의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 발생 ▶진출 성공 경험으로 인한 방심 팽배,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갈등 빈번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고성장 지속에 따라 구매력을 보유한 소비자의 절대적 수, 비중 증가 ▶외국인 투자유치, FTA 확대 등 정부의 우호적인 개방정책 추진 및 투자환경 조성 ▶베트남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노력으로 인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공급망 기지로서의 위상 강화에 따른 베트남 기진출 또는 진출 예정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 ▶첨단산업 진출시 고속련 인력부족, 현지 기술 축적 미진으로 인한 애로 가중

출처 : 2024 베트남 진출전략(KOTRA)

VI. 체류시 참고사항

☐ 날씨

- 복장 : 여름용 정장 및 평상복
-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하여 얇은 긴소매와 겹옷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음

☐ 입국 시 유의사항

- 한국인은 베트남 출국 항공권 및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을 소지 한 경우 45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
-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중단 되었던 외국인 무비자 입국이 '22년 3월 15일부터 전면재개 되었으며, '23년 8월 15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에 대해 기존 15일에서 45일로 무사증 입국 체류 가능 기간이 확대됨
- 베트남은 '17년 2월부터 온라인 비자(e-Visa)*를 시행하고 있음
* 전자사증 체류기간은 '23년 8월 15일부터 기존 30일에서 최대 90일로 확대됨
- 베트남에서 출국 시 최대 휴대 가능한 금액은 5,000 미국 달러
- 여권 훼손, 분실 시 출입국이 불가하므로 보관에 유의
- 베트남 입국 규제에 관한 규정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환율 및 통화

- 통화 : 베트남 동(VND)
- 환율
 - USD 1 = VND 25,382 ('24.5.3. KEB하나은행 환율 기준)
 - KRW 1 = VND 18.62 ('24.5.3. KEB하나은행 환율 기준)

☐ 대중교통

- 대중교통 : 버스노선 및 배차시간 불명확하므로 택시 이용 편리
- 요 금 : 기본요금 VND 5,000-12,000 / 킬로미터당 VND 13,000
* 다낭 국제공항에서 중심지까지의 평균 택시비는 VND 78,000~90,000

□ Tip 제도

- 베트남에서는 정상 요금에 봉사료가 포함, 팁 지불 불요

□ 시차 및 근무시간

- 시차 : 한국보다 2시간 느림 (한국 9시는 베트남 7시)
- 근무시간 : 관공서와 은행은 주 5일 근무제(월~금)를 시행(07:30~16:30)

□ 전압

- 220V / 50Hz (3상 콘센트, 호텔은 한국 2상 콘센트 사용 가능)

□ 전화 거는 방법

- 베트남에서 외국 전화 시 00 먼저 누르고 국가번호 및 전화번호 누름

□ 유의사항

- 소매치기/강도 및 시클로(삼륜 자전거) 주의
 - 최근 외국인 대상 소매치기/강도 등 범죄 증가, 늦은 시간 혼자 배회 자제
 - 최근 시클로 및 세움(오토바이택시)의 경우, 바가지요금 및 범죄 행각 증가
- 보행 시 주의 요망
 - 도로에 신호등, 육교 등이 거의 없어 도로 횡단 시 매우 위험
 - 도로, 호텔 근처에서 호객하는 경우는 장물일 확률이 높으므로 구매 지양
 - 현지인과 사소한 문제로 언쟁할 경우, 집단구타, 흉기 위험
 - 지갑, 여권, 휴대폰, 태블릿 PC 등의 도난 주의
- 음료수 등 음식물 주의
 - 길거리 음식 및 해산물은 위험하므로 끓인 물, 익힌 음식을 드시는 것이 바람직
- 택시 이용 시 주의 요망
 - 가능한 호텔 택시를 이용하시기 바람이며 미터기에 나온 금액보다 더 나왔을 경우 적은 금액은 가급적 포기하는 것이 신변에 안전
 - 택시기사 중 일부는 분쟁 발생 시 흉기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있음
 - 가급적 Vinasun, MaiLinh, Grab 등 유명 회사 택시 탑승 권장

VII. 주요 연락처

□ KOTRA 다낭무역관(KOTRA Danang)

- 주소 : 4th Floor Bach Dang Complex, 50 Bach Dang St, Hai Chau Dist
- 전화 : (+84)236-377-9700 / 팩스: (+84)236-377-9701

□ 한국 대사관(하노이)

- 주소 : SQ4 Diplomatic Complex, Do Nhuan St, Xuan Tao, Bac Tu Liem
- 전화 : (+84)24-3831-5111 / 영사부 (+84)24-3771-0404

□ 한국 총영사관 (다낭)

- 주소 : Lot A 1-2 Chuong Duong St., Ngu Hanh Son District, Danang
- 전화 : (84-236) 356-6103, 팩스 : (84-236) 356-6105

□ 한국 총영사관 (호치민)

- 주소 : 107 Nguyen Du St., Dist.1 HCMC, Vietnam
- 전화 : (+84)28-3822-5757 / 팩스 : (+84)28-3822-5750

□ 긴급의료시설

- 빈멕 병원 : Vinmec International Hospital, Danang
 - 주소 : No. 4-30/4 St, Hai Chau, Da Nang
 - 전화 : (+84)236-371 1111

<참고1> 한-베트남 고위급 외교 일지

- 한-베 수교 : 1992. 12. 22
- 정상급을 포함한 고위급 인사 교류 활발
 - 1993.5월 Vo Van Kiet 총리 방한
 - 1996.11월 김영삼 대통령 방베
 - 1998.12월 김대중 대통령 방베
 - 2001.8월 Tran Duc Luong 국가주석 방한
 - 2002.4월 이한동 총리 방베
 - 2003.9월 Phan Van Khai 총리 방한
 - 2004.10월, 2006.11월 노무현 대통령 방베
 - 2007.11월 Nong Duc Manh 당서기장 방한
 - 2008.3월 Nguyen Phu Trong 국회의장 방한
 - 2008.4월 임채정 국회의장 방베
 - 2008.5월 Truong Tan Sang 당 상임서기 방한
 - 2009.10월 이명박 대통령 방베(Korea week)
 - 2009.12월 김형오 국회의장 방베
 - 2010.10월 이명박 대통령 방베(아세안 정상회담)
 - 2011.11월 Truong Tan Sang 국가주석 방한
 - 2013.9월 박근혜 대통령 방베
 - 2014.10월 Nguyen Phu Trong 당서기장 방한
 - 2014.12월 Nguyen Tan Dung 총리 방한,
한-베 FTA 체결 타결
 - 2015.5월 한-베 FTA 공식 서명
 - 2015.12월 한-베 FTA 공식 발효
 - 2017.4월 정세균 국회의장 방베
 - 2018.3월 문재인 대통령 방베
 - 2018.9월 이낙연 국무총리 방베
 - 2020.10월 박병석 국회의장 방베
 - 2023.3월 윤석열 대통령 방베

<참고2> 다낭 인근 주요 관광지

<p>1] 바나힐스 (Ba Na Hill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낭 시내에서 30분 거리에 소재한 프랑스 식민지 시절 건설된 휴양지 (해발 1500m)로 Ba Na는 '신성한 여인'을 뜻함 ▶ 세계에서 2번째로 긴 총 길이 5801m의 케이블카 보유 (소요시간 약 20분) ▶ 정상에는 프랑스 마을, 판타지 파크(놀이시설), 밀랍 인형 박물관, 머큐어 호텔(4성급) 소재 ▶ 입장료 : VND 65만(약 33천원)-뷔페포함 시 VND 70만
<p>2] 린응사 (Linh Ung Templ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낭 해안가 북쪽, 선짜 반도 언덕에 위치한 사원으로 거대한 해수 관음상으로 유명 ▶ 관음상은 총길이 67m로 내부에는 서로 다른 형상을 한 21개의 불상이 소재 ▶ 영응사 안에는 사원들과 거대한 석상, 고목들이 잘 조성되어 있으며, 주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 ▶ 아름다운 해안선으로 인해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
<p>3] 미케 해변 (My Khe Beac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유명 경제 잡지 포브스 (Forbes)에서 선정한 세계 최고의 해변 베스트 6에 포함 ▶ 페러세일링(보트가 낙하산 끌어주는것) 등 몇 가지 해양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음 ▶ 시내에서 들어와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해변으로 접근성이 매우 좋아 현지인들의 만남의 장소 역할
<p>4] 오행산 (Marble Mounta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양 철학에 따른 하늘을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Thuy Son(水山), Moc Son(木山), Hoa Son(火山), Tho Son(土山), Kim Son(金山)으로 구성 ▶ 14~15세기 중부 베트남을 지배했던 참파 왕국의 조각상 및 18세기 베트남의 떠이 선(西山) 왕조의 다양한 베트남 시대의 유적들을 관람 ▶ 입장료 : 계단 VND 15천(750원) / 엘리베이터 15,000동/회

5 용다리 (Dragon Bridge)



- ▶ 다낭 한강(Han River)에 위치한 다낭의 랜드마크
- ▶ 2009년 7월에 건설을 시작, 2013년 3월 개통
- ▶ 15,000개의 LED램프로 야간 조명 (7가지 색으로 변함)
- ▶ 매주 토, 일 21시에 용머리에서 불쇼를 진행(약 10분)
- ▶ 주변에 '사랑의 다리' 및 '용이된 인어'상이 소재, 포토존의 역할을 함

6 다낭 대성당 (Da Nang Cathedral)



- ▶ 베트남 중부 다낭 대교구 성당으로 프랑스 식민지 시대 다낭에 지어진 유일한 성당
- ▶ 치솟는 선과 크라운 아치의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성당 안에는 성서의 사건을 그린 삽화가 있음
- ▶ 지붕에는 합금으로 만든 회색 닭 조각상이 있어 치킨 교회로 부르기도 함
- ▶ 국내 TV프로그램에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소개

7 다낭 한시장 (Da Nang Han Market)



- ▶ 한 시장은 다낭 최대 규모의 종합 재래시장으로 다낭 대성당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할 정도로 가까이 위치
- ▶ 고기, 생선, 과일 등의 식료품부터 꽃, 비단 등의 옷감, 티셔츠나 청바지 등의 옷, 신발, 기념품 등 판매
- ▶ 영업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임

8 호이안 올드타운 (Hoi An Ancient Town)



- ▶ 다낭시내에서 차량으로 약 40분 거리에 위치
- ▶ 15~19세기 동남아 무역항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으로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 ▶ 중국·일본의 건축양식과 베트남 전통방식이 결합한 당시 건물(일본교, 광동회관 등)을 관람할 수 있으며 호이안 야시장 역시 가까이에 위치
- ▶ 입장료 : VND 120,000(6천원)

9 미선유적지 (My Son)



- ▶ 다낭에서 남서쪽으로 69km 지점에 위치한 고대 참파 왕국의 힌두교 사원 유적지로 4세기~14세기에 세워짐
- ▶ 미선은 참파 왕국의 종교였던 힌두교 시바 파의 성역이며, 참파 왕국 전체의 수도였음
- ▶ 사원군은 2개의 산맥에 의해 둘러싸인 2km 너비의 골짜기 안에 있음
- ▶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참고3> 간단한 베트남어

안녕하세요. Xin chào. (썸 짜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Rất vui được gặp ((남) anh/((여) chị)
(젓 부이 드억 갑 (아인/찌))

상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Xin cảm ơn ngài đã cho gặp.
(썸 감 언 응아이 다아 쯔 갑)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Rất có ích đối với tôi.
(젓 꼬 익 도이 버이 또이)

또 뵈겠습니다. Chúng ta sẽ gặp lại nhau. (썸 따 썸에 갑 라이 냐우)

감사합니다. Xin cảm ơn. (썸 감 언)

얼마입니까? bao nhiêu tien?(바우니우 땡?)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 Anh/Chi Ten gi a ?(아잉(남)/찌이(여) 땡 지 아?)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Tên tôi là (Hongkildong). (땡 또이 라(홍길동))

잘 모르겠습니다. Tôi không biết. (또이 크움 비엣)

실례합니다. Xin lỗi. (썸 로이)

오늘 hom nay (흙 나이), 내일 ngay mai (응아이 마이), 어제 hom qua (흙 과)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